

# 고흥군 인구 늘리기 대책 '약발 안듣네'

### 전국 첫 인구정책과 신설 등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 불구 심각한 고령화에 속수무책...인구 감소 추세 둔화에 만족

고령화가 심각한 고흥군이 인구 감소로 인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구정책과를 만들고 인구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는가 하면, 다양한 인구 늘리기 정책을 펼치는데도 고령화 및 인구 감소 현상이 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인구 감소 추세가 둔화되고 출생아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꾸준한 인구 늘리기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날로 심각해지는 고령화=23일 전남도에 따르면 고흥군의 노인 인구 비중은 39.3%(6월 말 기준)로 전남 22개 시·군 중 가장 높다. 고흥군의 노인 인구는 지난해만 해도 2

만5568명으로 전체 인구(6만5777명)의 38.9%였다. 하지만 올해들어 인구수는 줄고 노인은 늘어나는 현상이 이어지면서 39%대를 넘어서 40%를 넘보고 있는 형편이다.

고흥의 고령화 속도는 지난해 말 이후 ▲3월 2만5631명(39.1%) ▲5월 2만5679명(39.2%) ▲6월 2만5705명(39.3%) 등으로 꾸준한 상승세다.

◁나날이 감소하는 인구=인구는 끝없는 감소세다. 지난해 말 6만5777명이던 인구는 지난달 6만5435명으로 342명 줄었다. 같은 기간 노인 인구가 137명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인구 감소폭이 더 컸다. 이같은 점을 고려하면 올해 말 고흥 인구는 6만 5000명 수준을 가깝스로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나마 지난해 959명이 감소한 것에 비하면 감소폭이 둔화됐다는 점은 고흥군이 위안을 삼고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월평균 80명이던 인구 감소세가 올해 상반기까지 월 평균 57명 감소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또 출생아는 월평균 18.3명에서 23.6명으로 5.3명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는 게 고흥군 설명이다.

◇손을 놓을 수도 없어=그렇다고 가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게 고흥군의 고민이다. 당장 효과가 나지 않더라도 젊은층 유입을 위한 귀향 귀촌 정책과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데 꾸준히 투자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얘기다.

고흥군이 지난해 7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구정책과를 신설, '2022년까지 인구 감소를 제로화'를 목표로 고흥군 인구정책 5개년 세부계획을 수립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올해만 해도 가업승계 청년 지원, 귀향

귀촌 집들이 지원, 귀향귀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청년 여촌 정착지원, 결혼 장려금 및 출산 장려금 확대, 신생아 백일사진 지원 등 인구유입을 위한 다양한 시책도 펼쳐왔다.

또 '사람이 돌아오는 행복한 고흥 살기 군민 다짐대회'를 비롯해 일자리 창출 위원회와 저출산 극복 민·관 네트워크 구성, 민간주도 행복마을 조성, 지역사회단체 출산 축하꾸러미 전달 사업 등 인구유입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힘썼다.

고흥군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귀향귀촌 유치 우수마을 지원(최대 1억원), 귀향청년 U-turn 정착 지원(1000만원), 귀향청년 주택 수리비 지원(1000만원), 전일세대 지원금(20만원), 자동차세 10만원, 주민세 감면) 및 장려금 지원(300만원), 청년 도전 프로젝트(1000만원) 등을 통해 인구 늘리기에 총력을 다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 보성녹차 '군수품질인증제'로 고급화 노력

보성군이 보성녹차의 품질 고급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보성군은 최근 보성녹차군수품질인증 심의회를 열고 지역 31개 차 제조 가공업체의 38개 제품에 대한 품질평가를 실시, 27개 업체 33개 제품에 대해 군수품질인증을 수여했다. <사진> 군수품질인증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녹차제품에 대해 군수가 품질을 인증해 주는 것으로, 올해로 11년 째다. 품질 전문가(10명)가 차의 외형, 맛, 향, 색, 우러난 잎의 형상 등의 다섯 가지 항목을 오감(五感)으로 평가해 100점 만점 중 85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 고흥서 '드론장애물 레이싱대회' 연다

### 8월 11일 팔영체육관...드론 축구대회도 개최

'드론산업 규제프리존'인 고흥에서 마 음껏 드론을 날릴 기회가 생겼다. 23일 고흥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8월 11일 팔영체육관에서 드론 장애물 레이싱 대회와 드론 축구대회를 연다. 이번 대회는 국가 미래성장동력 산업으

로 떠오르고 있는 드론 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고흥군은 전국 최대 규모의 비행시험 구역(직경 22km), 국가종합비행 성능시험장 등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점 등을 적극 알리는 기회로 활용한다는 계획 이다.

복잡한 코스를 빠르게 주행해야 하는 드론 장애물 레이싱 대회와 축구공 모양의 드론을 원격 팔대에 집어넣는 드론 축구 대회로 나뉘어 진행된다. 레이싱 대회는 100개팀이 참여하고 드론 축구는 16개 팀의 참가한 가운데 펼쳐질 예정이다. 전남지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고흥군은 이번 대회를 경험삼아 내년부터 전국대회로 치러 '드론산업 규제프리존'인 고흥이 국가 드론산업 중심지임을 전국에 알리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전남도는 고흥을 비롯, 중부·서부·동부 등 권역별 특성에 맞게 드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지역전략산업인 드론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3개 분야 11개 사업에 7787억원을 투입한다는 청사진을 내놓고 관련 사업을 진행중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 곡성군, '칸탈루프 멜론' 첫 출하 임박

곡성군이 시범 재배한 '칸탈루프 멜론'이 첫 출하를 앞두고 있다. 23일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8월 1일 0.5ha 규모로 조성, 재배한 칸탈루프 멜론의 시식회를 갖고 지역 농업을 통해 출하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3월 사업 설명회와 재배기술 등을 소개한 뒤 지역 농가를 통해 칸탈루프 멜론을 재배해왔다. 칸탈루프 멜론은 일반 멜론과 달리 녹색 세로줄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 아비뇽지방의 대표적 건강 과

일로 프랑스에서는 3대 장수식품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 국내에서도 가공품 형태로 많이 판매되고 있다. 칸탈루프 멜론은 내인성 항산화 효소 중 가장 강력한 SOD(Superoxide dismutase)가 일반 멜론의 7배에 달한다. 카로티노이드계 항산화제인 베타카로틴( $\beta$ -carotene)도 일반 멜론의 60배 이상 함유하고 있어, 혈관질환 개선과 피부 보호 효과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 고흥 녹동향에 수산물 청정위판장 조성

### 군,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선정 국비 등 60억 투입 건립

고흥 녹동향에 청정 수산물 공급을 위한 산지 위판장이 조성된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19년 청정 위판장(H-FAM) 모델 구축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 결과, 고흥군 수산업협동조합을 사업자로 선정했다. 청정 위판장은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수산물 유통체계의 출발지인 산지 위판장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위판장과 하역 공간 분리, 저온 경매시설 설치 등 선진 위생 시스템을 갖춘다. 고흥군은 오는 2020년까지 국비 24억원을 비롯, 60억원을 들여 고흥 녹동향에 저온경매시설과 자동선별·소분포

장 시스템 등을 갖춘 위판장을 세운다. 전남도는 현재 녹동위판장 위판액 규모가 500억원(낙지·문어·돔·넙치 등 4000t)에 이르는 만큼 청정 위판장 조성이 위판액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남도는 청정위판장 추가 건립을 통해 전남지역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내년 대상지를 선정해 국비를 확보하는 작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산물 생산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남지역에 청정 위판장 건립을 확대,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 구례군 "멧돼지 포획틀 빌려줍니다"

구례군이 멧돼지 포획틀<사진>을 빌려주는 사업을 추진, 눈길을 끌고 있다. 멧돼지 개체 수를 줄여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현재 포획틀 12개를 설치해 멧돼지 2마리를 잡았다. 야생동물에게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

이나 마을 이장이 신청하면 되고 포획허가 기간(2개월)은 연장할 수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포획틀 설치 전, 먹이주기 활동이 효과적으로 멧돼지를 포획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유해야생 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 세열금

### "살기 좋은 고흥 만들기 최선"

#### 정상동 고흥 부군수



"살기 좋은 고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제28대 고흥 부군수로 취임한 정상동(56) 부군수는 "우주항공중심 도시 고흥 부군수를 맡게 돼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희망찬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데 모든 공직자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정 부군수는 또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으로서 1차산업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펼쳐

잘 사는 1등 고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양출신인 정상동 부군수는 1982년 공직생활을 시작해 전남도에서 기획행정팀장, 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해양수산국 해운항만과장 등을 역임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

## 덕남동, 임야 급매

- 장·단기 최고 투자 물건임
  - 덕남동, 992㎡, 공유지분 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500만원(3.3㎡당 15만원)
- 문의. 010-6834-7400

